"행복의 씨앗 심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

WFB 세계고승수계대법회
6월13일 여수 흥국체육관서 봉행
각국 원로스님들이 직접 수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원로 스님들이 직접 수계하는 대규모 법회가 봉행된다. "WFB 세계고승수계대법회"가 오는 6월13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전남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수계법회는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 개최 기간 동안 열리는 국제행사다. 전계대화상에 조계종 전계대화상 고산스님, 같마아사리에 조계종원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교수아사리에 원오선원 도문스님 등을 게재로 의식을 진행한다.

프랑스와 태국, 호주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승을 상사왕좌으로 모시고 수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현 프랑스불교협회장인 람탕빈해를 다마타타나 스님, 태국왕 특사 프라 쩜앙치라야 스승,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영신스님, 인도국제불교연맹 창설자인 라마함장 스님, 방글라데시 불교협회장 수다난다 마하테라 스님, 대만불교협회장 명관스님, 티베트 불교지도자 라톰 린포체, 몽골 파시크왈라 주지 퍼랑지브 딤타마브 스님, 호주불교협회 이사 뒷쿼션 스님 등도 참여한다.

명사 이후 "팔만대장경"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수계 법회 참여를 원하면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 조직위원회(www.wfb2556korea.org)로 문의하면 된다. 동참금은 3만원이다.

조직위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큰 스님과 외국 스님들이 참여하는 이번 법회는 불자들에게 다시없는 기쁨가득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 불교인들의 교류증시와 WFB 한국대회는 6월11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홍다영 기자 hong0@buhgo.com

WFB 한국대회 로고.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8일 캄보디아 승왕 법명스님(가운데)의 예방을 받고 선물을 전달했다. 신재호 기자

"한국 승가교육환경 부러워"
캄보디아 승왕 법명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캄보디아 승왕(법명 스님)과 법명스님의 방문을 맞고 환담을 나눴다.

캄보디아 승왕 법명스님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종단의 승려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에 캄보디아의 대승원을 기증하기 위해 지난 17일 내한했다.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은 법명스님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한국 스님들의 훌륭한 교육수행환경을 둘러보니 정말 부러웠다"며 "중앙승가대는 큰스님들을 길러내는 산실이 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멀리 한까지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승경 이운을 계기로 양국 불교의 유대가 더욱 고조돼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장영실 기자 fuel@buhgo.com

"혼탁할수록 초발심 견지"

부처님오신날 봉축사

수종 불교신문 사장

불자 여러분, 그리고 《불교신문》 독자 여러분.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사부대중 모두 처음 맞이하는 이만큼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이라는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의 가르침을 돌아볼 때입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더라도 불자라면 불법(佛法)을 처음 만나 수행하듯 다고 발원한 그 마음을 잊어선 안 됩니다.

소중해고 지중한 부처님과 그 안연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불법(佛法)을 신봉(信奉)하고 고귀한 보살도를 실천하는 확고한 신심 버리지 말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인연 있는 도량을 찾아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립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불속에 키워서입니다. 부처님의 세상에 출현은 혼탁겁은 망명대해에서 한 줄기 빛으로 광도(廣度)를 밝혀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번뇌와 망상으로 집착하고 고통받는 중생들이 무명(無明)을 밝혀 광명(光明)의 세계에 이르도록 다는 원력도 등공양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불자 여러분.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불교신문》은 종단에서 발행하는 언론매체로서의 공공성(公共性)을 명심하고, 창간 당시의 초발심을 잃지 않으며 정진할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의 진리가 우리 사회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불교에 등대'가 되고, '세상의 등불'이 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든 마음(魔障) 훌훌 털어버리고, 원력 정만성취하길 기원드립니다.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스님 원적

한국불교 대중화 현대화 기여
26일 전국비구니회葬 영결식

근현대 불교대중화 및 현대화에 기여했던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스님이 지난 22일 지정 안양 한마음선원 분원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납 86세, 법랍 63세. 분향소는 안양 한마음선원 분원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5월 26일 오전10시 한마음선원 분원에서 전국비구니회장으로 엄수된다.

스님은 1972년 대한불교조계종(현 한마음선원)을 설립하고 전법교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1982년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으로 개원하고, 선원장으로 취임한 스님은 본격적인 대중포교에 나섰다.

음성 금왕지원을 개원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포항, 제주 등 전국 15개 국내지원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독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등에도 해외 10개 지원을 설립하는 등 폭넓은 포교활동을 벌여왔던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스님은 법왕단을 창단해 선시와 법어로 만든 선법가로 음성포교를 시작했고, 비디오 법문을 통한 영상포교를 시작했다. 이밖에도 생명공원 조성해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했으며, 핫으로 불이만 한글경전을 보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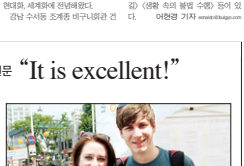
1994년에는 주간지 현대불교신문을 창간해 문서포교에 기여했으며, 1996년에는 불교보보네트 보드라마를 창설해 인터넷 포교에도 앞장섰다. 불교인터넷방송국 HBTV 한마음불교방송국을 개설해 매체포교에 새 장을 열었다. 또 심성과학연구원, 국제문화원을 설립해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에 전념해왔다.

강남 수서동 조계종 비구니회관 건립을 찾은 마리나 사소(Marina Sasso, 이탈리아)는 "시도가 정말 좋다"며 영어판 불교신문의 지속적인 발행을 통해 "종교간 관계 개선에 힘써주고만 동참다"고 조언했다.

김인만 인턴기자

영어판 불교신문 "It is excellent!"

연등회 찾은 외국인 대상 전통문화마당서 무료배포


지난 20일 외국인이 영어판 불교신문을 보며 감탄한다.

지난 20일 전통문화마당 잔디밭 영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교신문을 무료로 배포하는 행사가 열렸다. 배부된 영어판 불교신문은 연등회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람을 위해 방문된 것이다. 종교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연등회에는 해마다 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0일 시작된 연등회에는 약 30만명의 외국인이 참가했다.

연등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캐 이 시 그 월 리 영 (Casey Grifflam, 미국 버지니아)은 영문판 불교신문을 보고 "너무 흥분해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해외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신문"이라며 발행을 축하했다. 이어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어판 영어판 추가발행을 권유했다.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조계사 앞 인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부지 확보 이후 건립에 나섰을 때고 있는 외교분쟁사에 가벼움 후원해 바구니 수행자와 여성불자 활동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4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400여년간 전법교화에 매진한 스님은 지난 2010년 조계종 포교대상 종정상을 수상했으며, 2002년 UN에서 수여하는 '위대한 불교 여성상'을, 2001년에는 스리랑카 종교부서국의 '사르보다야 명예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돈으로 본 금강경》 《돈으로 본 천수경》과 영한반역본 《만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등이 있으며 법여성모임 《지유인의 길》 《생활 속의 불법 수행》 등이 있다.

이현경 기자 ainsaki@buhgo.com